

옛 전남도청 시범 운영 끝... '깜깜이 보완' 우려

2월28일-4월5일 9만5천여명 방문
46주년 5·18에 맞춰 정식 개관 예정
전시 콘텐츠 수정...대상·범위 미공개
오는 15일 실무협...'운영 주체' 관심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 전까지 전시 콘텐츠 수정·보완에 들어갈 예정이나, 이렇다할 방향을 내놓지 않아 '깜깜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

월28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시범 운영 기간 누적 방문객은 9만5천4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후 추진단은 전시 환경과 해설 방식, 관람 동선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5월18일 제46주년 기념식 당일에 맞춰 정식 개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다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범 운영 기간 다수 언론과 오월 단체 등에서 전시 콘텐츠 일부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왔다.

주요 지적은 신군부·계엄군 입장에서의 서술과 범법판결문 등 사료와 내용 불일치 등이었다.

특히 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계엄군을 무력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이 아닌'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왜곡 발미 제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 최후 항쟁 당일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 수가 도청 내부 기준 14명이라며 동판을 설치했지만, 1987년 대법원은 도청 안팎에서 18명이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도청 내부 14명, 인근 5명 등 추가 희생자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 전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시 개관 후 이 같은 지적과 수정 요청이 잇

따르면서 추진단은 보완 계획을 밝혔지만, 어느 것이 대상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고 근거를 가지고 검수를 거쳐 콘텐츠를 만들어 왔기에 당장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이 된 부분들은 정식 개관 전까지 수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소속 한 회원은 "정식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칠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깜깜이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라며 "추진단

은 말로만 보완 의지를 나타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공개로 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식 개관 전 운영 주체가 결정될진 아직 미지수나 오는 15일 '개관실무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가 명칭을 바꾼 개관 실무협의회에는 기존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옛전남도청복원대책위원회가 참여한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아시아문화전당과는 별도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식 개관 전 조속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추진단도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상기자

광주서 '경찰의 별' 경무관 5년 만에 나와

순경 출신 최병윤 112상황팀장

광주경찰이 5년 만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배출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최병윤(54·사진) 광주경찰청 112지안종합상황팀장 등 28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자로 내정했다.

순천 출신의 최 팀장은 순천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법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순경 경제 181기로 경찰에 입직했고 전남청 경무계장·순천시장·광양시장, 광주청 경비과장·정보과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광주청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나온 건 2021년 12월 박우현 당시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인재영기자



도서관 문화마당 독서 체험 '문학, 너를 만나기 800m전'을 주제로 한 제14회 도서관 문화마당이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일대에서 열려 어린이들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광주 지하철 돌고개역서 고장...승객 '불편'

20분 이상 운행 중단 두 번째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운행 도중 멈춰 승객들이 예정에 없던 하차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5일 광주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4분께 농성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돌고개역에 진입한 뒤 갑작스럽게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탑승 중이던 승객 30여명 모두 열차에서 내려야 했다.

이후 고장 열차가 철도 차고지까지 견인되면서 지하철 운행은 오전 11시43분께 재개됐다.

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은 그간 짧은 시간 동안 멈추는 일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20분 이상 이어진 적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장 전에는 지난해 1월 전기 공급을 유

지하는 파괴기 이상으로 약 25분간 운행이 멈췄던 게 1호선 개통 이후 최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찬웅기자

영암 교차로서 충돌사고...5명 사상

영암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A(70대)씨의 승용차와 직진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의 배우자와 지인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외에도 A씨와 승합차 운전자 B(40대)씨 등 3명이 중상 및 경상을 입고 목포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찬웅기자

"내란 청산 완수·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尹 탄핵 1년' 광주 시민사회염원

촛불행동 "조희대 사법부 물러나야"

5·18기념재단 "국힘, 개헌 동참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광주 시민사회와 오월 단체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책인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5일 광주·전남 촛불행동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금남로 회화나무 숲 일대에서 '제132차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

진'을 전개했다. '12·3 비상계엄' 한참 전부터 촛불을 들어온 촛불행동은 총장지안센터와 금남로공원을 지나 다시 회화나무 숲까지 돌아오는 대행진을 통해 내란 세력 처벌을 촉구했다.

나규복 상임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며 "마지막 상고심을 갖게 될 조희대 사법부는 사실상 내란의 공범으로 이들과 물러나야 진정한 청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진위 쿠데타 저지와 탄핵까지의 과정에서 한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면서 "완전한 마무리를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의 단죄이고 이를 통해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열변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탄핵 선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는 모습까지 보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차 특검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밝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장은 "오월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를 위해선 발의자 187명 의 최소 10명의 동의를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경남 지역의 부마항쟁이 포함되는 만큼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형우·이연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